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나는 북한산과의 만남을 계기로/인생 이천과 인생 이후로 나눈다./내가 겪은 모든 굴욕은/내 스스로 사서 당한 굴욕이란 것을 알았다./나의 좌절 나의 실패는 오로지 그 원인이/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친구의 배신은 내가 먼저/배신했기 때문의 결과이고/애인의 변심은 내가 그렇게/만들었기 때문의 결과라는 것을/안 것도 북한산상에서이다.

다. 그것도 모자라 일요일에는 친지들과 만나 북한산에 올라오니 북한산과의 안면이 나만큼 깊고 오랜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산이 내게 이런 것이었노라고 딱히 말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람이 나

북한산에 올라서서

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것을 절이 든다고 말하거나, 사시사철 북한산에 오르면서 절이 바뀌는 것을 품으로 느껴왔으니, 내 북한산으로 하여 절이 들었다고나 할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일상의 길 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등산이라고 한다면 나는 등산보다는 일상 속에서 산행을 즐기는 유산(遊山)쪽을 택하고 싶다. 나는 북한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발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북한산은 서울시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담보해 주는 고마운 산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산 자락을 떠나온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나는 지금도 그 북한산을 못 잊어 가끔은 혼자 북한산에를 간다. 지난주에 다녀왔다. 금아(琴兒)선생은 "신록을 바라다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즐겁다"고 했는데, 나는 바로 그 신록의 깊디 깊은 속에 있었다. 이즈음 나의 북한산행은 언제나 백운대로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렸다. 가끔씩 찾아가는 산행이러니만 우선은 거기부터 들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진산이 북한산이요, 북한산의 상징은 뽕나무라고 백운대라는 것도 물론 작음했다. 그러길래 선인들은

천지신명이시여, 이 겨레와 한반도에 진정한 안녕과 평화를 주소서. 우리 겨레로 하여금 두루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의 문명을 크게 일으켜 세계와 인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소서. 북한주민들에게도 그 모두가 고고국에 이밥을 먹고 잘살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안보와 4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7천만 겨레의 올바른 행로를 위하여, 밝은 이성, 경건한 책임감과 진정성으로 깨어 있게 하소서. 더 이상 이 나라가 혼란과 분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이 떠난 뒤임이 평화롭고, 그 자리가 또한 아름답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다음 지도자로는 시대정신에 맞춰, 거짓과 위선이 없는 수신(修身)의 사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분별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 나라의 공동체가 인류문명의 진보와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열게 해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크게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시련을 주신다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하루속히 미리내로 하여금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어느날 현연히 쾌유하게 하소서. 빌고 또 빌고 간절히 비읍니다. <인문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on@kwangju.co.kr

NGO 칼럼

박필순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스웨덴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정상회의'를 기념해 그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날이다. 유엔은 지난해에 '사막과 사막화의 해'로 정하고, 사막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엔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중국 고비사막에 이르기까지 지구 육지의 5분의 1에 이르는 면적이 사막이며, 다른 지역을 역시 사막화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경고했다. 급격한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침식당해 연간 420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 생산

해준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경고음의 징후가 도처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2000년 폭설을 시작으로 2005년 호남지역 폭설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사상 최대'라는 이름으로 기후재앙이 일어났다.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불볕 무더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봄기운에 '식목일을 앞당겨야 하지 않느냐'는 논쟁까지 일어났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실생활 가까이 와있다는 것이다. 물과 식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동식물이 사라지며 보지 못했던 동식물이 나타나 나의 삶을

인류여! 지구를 지켜라

물이 손실되고 있어 식량위기에까지 초래하고 있다. 중국 내륙에서 나타나는 '황사'는 우리나라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지난 4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엔 IPCC(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 4차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변화가 초래할 재앙이 주 내용을 이뤘다. 보고서는 2080년경 지구의 평균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측했다. 또한 주요 생물은 상당수 멸종될 위기에 직면하고, 인류사회도 마실 물과 식량이 부족해져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엘 고야'의 변신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은 그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 생동감 있게 전

위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끔찍스럽게. 사람들은 예제 외면하기도 하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무슨 환경 타령이나고 말하지만 환경보호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인간의 무지와 욕심이 그치지 않고 이상태로 가면 더 이상 지구 환경이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는데.. 오늘도 희망을 안고 자라는 우리 아들·딸에게 먹을 수 있는 물과 숨 쉴 수 있는 숲을 남겨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환경의 날을 맞은 오늘, 이러한 하나뿐인 지구의 아픔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스럽다.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단 한 그루 나무를 심는 마음을 간직했어 할 때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녹색사회 부장>

같은 집인데 기관에 따라 재산평가 제각각

최근 보육료를 감면 받고자 남구청 담당자와 상담 중 소유한 아파트가 1억1천만원(사랑방에 표시된 희망 매도가)으로 계산돼 보육료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5월 4일자로 보낸 통지문에는 공시 지가가 8천100만원으로 나와 있어 남구청에 항의했다니 전화를 받은 직원 "여성 가족부 보육료 산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국가 공공 기관에서 각종 세금을 징수할 때나 토지 보상을 할 경우 건설교통부는 공시 지가를, 국세청은 기준 시가, 시·군·구청은 과세 표준 시가로 계산해 산출한 뒤 세금을 부과하면서 왜 여성 가족부에서는 어린

이 보육료 감액 산출을 할 때 '무가지 신분인 사람'방 매도 희망 가격'이나 국민은행의 담보용 주택 가격을 표준으로 계산하는 지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국가 중앙 공공기관에서 각각 다른 재산액을 계산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행정을 실시하는 것은 정부기관 스스로 '한국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정은 알파한 전시 효과적 행정으로 사료된다. 보육료 감면 제도를 없애버리거나 일관된 재산 금액을 산출한 뒤 처리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정중순·광주시 남구 방림동



칠면조들의 싸움



칠면조는 암수끼리 놓아두면 서로 무척 좋아하지만 새로운 수컷이라도 넣어 주기라도 하면 큰 일이 난다.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세가 장난이 아니다. 다른 동물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를 일이다. 천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된 상황이 아니라서일까. 대중 우위를 가리고 물러나면 될 걸, 그 싸움은 뜰어말라도 끝날 줄 모른다. 만일 말리는 이가 사냥꾼이나 천적이라도 된다면 그대로 그들 두 목숨은 날아가는 셈이다. 이 흑·백의 칠면조 두 마리는 철창사 이로 서로 나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육사가 무심결에 열어놓은 틈 사이로 백색 칠면조가 들어왔고 원래 이 곳을 차지하고 있던 흑색 칠면조에

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진에서 이를 그대로 그들은 붉으라 푸르라 하면서 주 무기인 두발차기로 공격전을 벌이고 있다. 재미있어서 한 참동안 쳐다보다 안 되겠다 싶어 말러 들어갔다. 소소한 불구경과 싸움 구경은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은근한 재미가 있다고 하지 않은가. 동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김정일 같은 이는 호랑이와 사자, 곰 같은 맹수들을 데리고 실제로 싸움을 붙여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맹수들의 싸움은 일단 불온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니, 조금은 '유위'처럼 여겨지는 닭싸움과는 분명 차원이 다르다. ◇최종득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사무실 옮겨가며 불법 일삼는 단단계 업체 강력 처벌을

단단계 판매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소비자 피해보상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특히 단단계 판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된 공제조합 제도가 유명 무실한 상태여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공제조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단단계 판매업자들이 일정 금액을 출자해 설립한 기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신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한다. 2002년 방문판매업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도입됐으며, 단단계 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단계 판매업체는 소비자나 판매원이 물

품을 구입하면 이를 공제조합에 통보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업체가 환불을 거절하거나 과한 소비자 피해를 봐도 통지서가 있으면 공제조합이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없는 소비자는 구제 받을 수 없다. 통지서가 있다 해도 소비자는 350만원, 판매원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피해보상이 가능해 조건이 불리하다. 물론 피해보상 한도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공제조합 탓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소비자들 기만하는 일부 단단계 판매업체들이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단단계 판매업체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승정동

시설

지도층 인사까지 여중생 성매매 했다니

가출한 여중생을 6개월 동안 모텔에 감금하고 1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파렴치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감금해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20대 남녀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 동안 여중생을 광주 시내 모텔에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2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특히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 여중생을 쇠 파이프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손등을 담뱃불로 수차례 지지기도 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행이 6개월 동안이나, 그것도 광주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매매 남성 가운데는 대학교수, 의사, 약사 등 사회지도급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한 대학교수는 몸뚱이 피멍이 든 피해 여중생을 구출하기는커녕 10여 차례

나 성매매를 했고, 단골손님이었던 한 약사는 다친 부위에 약까지 발라주었다고 한다. 딸 보다 어린 소녀가 감금돼 몸을 팔고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이들이 온 정진인지 의심스럽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지만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최종 법원판결 결과 47.1%가 벌금형에 그쳤다. 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긴다는 점에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명 단공개나 벌금형만으로는 안 된다. 실형 등보다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경찰은 이번 감금 여중생 성매매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 인사들은 신상공개는 물론 구속해야 할 것이다.

난무하는 '막말 정치' 국민은 안중에 없나

정치권에 뒷골목에서나 흔히 나올 법한 막말이 난무하고 있어 안타깝고 씁스럽다. 수준이 너무 낮고 협체 국민들이 듣기에 민망하다.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 가는 최고 정치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막말'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막말의 중심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선 예비주자를 비롯 정치지도자들이 있다. 전직 대통령 간엔 '사생결단'이란 표현에 '발악'이란 비난이 뒤따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정신 가진 사람' '독재자의 딸' 등으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겨냥했다. '그 놈의 헌법'이란 말까지 쏟아내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은 '분서경유' '사이비집단 교주' '간신' '홍위병' 등의 용어로 노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재우 최고위원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며 소개한 '블랙 유머'를 보면 절정에 이른 느낌이다. 노 대통령이 시골을 여행하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다쳤다'는 대통령

의 말을 믿지 못하는 농부가 아예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수준 이하의 말을 주고받으며 상대방 후벼파기 경쟁을 하고 있다. 정계개편이 본격화되고 대선 이 다가올수록 '막말 정치'의 기승을 부릴 것이다. 내일은 또 어떤 험악한 말이 등장할지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에게 건전한 정책대결이나 미국의 정치인들과 같은 유머와 재치를 주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재자의 딸' 등으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겨냥했다. '그 놈의 헌법'이란 말까지 쏟아내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은 '분서경유' '사이비집단 교주' '간신' '홍위병' 등의 용어로 노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재우 최고위원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며 소개한 '블랙 유머'를 보면 절정에 이른 느낌이다. 노 대통령이 시골을 여행하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다쳤다'는 대통령

無等鼓

월드컵 축구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출전하지 않는다. 대신 대회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등장한다. 영국은 처음 참가한 지난 1950년 6월 제4회 브라질 월드컵 대회부터 졸풍 단일팀이 아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나뉘어 출전하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영국은 월드컵 초창기, 수준이 낮은 것을 의면했고 국제축구연맹은 흥행을 위해 설득에 나섰다. 그러자 도도해진 영국은 1개가 아닌 4개팀의 출전을 조건으로 결정한 국제축구연맹은 '1국가 1회씩 참가'라는 원칙을 깨며 결국 중주국 예우차원에서 울며겨자먹기 받아들였다. 월드컵축구에서 '비운의 스타'하면 웨일즈가 고국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웅 라이언 기그스(Ryan Giggs)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세계 최고의 '왼족날개', '왼발의 마법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월드컵 본선 무대는 단 한번도 밟지 못했다. 18세부

터 국가대표로 뛰면서 4차례나 월드컵을 위해 분투했지만 웨일즈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잉글랜드는 그에게 끊임없이 귀화를 권유했지만 조국을 버리지 않았고 그는 그같은 자신의 결정을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 3일 유로 2008 체코와 예선전을 끝으로 월드컵 출전의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채 웨일즈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최근 미국 프로야구 시애틀에서 활약중인 투수 백차승이 베이징 올림픽에선 국가대표 명단에서 빠져면서 지난 2005년 4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영국문제를 해결하고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 그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영역을 기피한 미국인 백차승'에 대한 팬들의 비난이 끊겼고 있다. 유니폼을 벗는 날까지 명예를 지킨 기그스의 '조국 사랑'이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한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처부장 kihh@

'미국인' 백차승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